



◇ 지난 7. 8일 송광사에서 열린 보조사상연구원 제7회 학술회의

### 불교 학술행사 풍성

불경전산화·종조문제 등 조명

10월들어 각종 학술대회가 전국에서 열려 불교학계의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준다. 한달 동안 열린 10여건의 학술대회는 각기 독특한 주제와 내용으로 불교학계의 관심을 모았다.

#### 불경전산화

지난 1.2일 합천 해인사에서는 해인사 장경연구소(소장 종필)주관으로 세계전자 불경전산화 제2차 회의가 열렸다. 전 세계 불교자료의 전산화 공동 작업을 목적으로 지난해 4월 결성된 전자불경전산화회는 10개 회원국 30여 학자들이 모여 각국의 불경전산화작업 추진에 관한 현황보고와 프로그램 교환을 위한 시연회를 가졌다.

#### 불경전산화

이전 회의에서는 모두 네차례에 걸쳐 전산입력코드의 통일화를 위한 충분한 의견교환을 가졌으며, 서울대 심재홍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업무회의에서는 차기회장을 비롯하여 2년후 96년에 열린 3차회의를 위한 불경전산화추진위원회 개최하기로 했다.

#### 성철스님 1주 행사

7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성철스님의 열반 1주기를 맞아 백련불교문화재단 주최로 '회상 성철 대선사의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서울대 종교학과 윤원철교수가 '선종정통(禪宗正統)의 수증본'을, 연세대 국학연구원 신규택교수가 '본지풍광(本地風光)과 일제침공'을 발표했다.

#### 보조대교 사상세미나

같은날 7일부터 8일까지 송광사에서는 보조사상연구원(이사장 현호)이 '보조지론과 태고보우의 선사사상'을 주제로 한 제7회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이 세미나에서는 지난해 29일 종현 개장간의 공포때까지 10월29일 대간에서 대주체 없이 된 조계종 종조는 정과 연관과 교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약 2백여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서 토론방향을 보조와 태고를 조계종 종조로 함께 인정하되, 종통을 태고보우에 두고 종자를 보조지론에 두자는 절충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 자장사상 학술회의

이러 13일 동포사 원동전에서 '자장사상의 문화사적 고찰'이란 주제로 영축불교문화연구원(원장 성파)의 제5회 정례학술회의가 열렸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한국 화엄의 초조고(初祖考)' (이도업 동국대 경주정각장), '자장정율과 사본율' (남동진 외대교수), '자장의 사상적 기반' (박태원 동의대교수) 등의 논문이 발표됐다. 또 15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는 '한국불교문화의 진단과 전망'이란 주제로 한국불교문화원(대표 홍우홍) 개원 1주년 기념세미나가 열렸다.

#### 종교개혁세미나

18일에는 조선호텔 2층 라일락에서 '종교개혁을 위한 세미나'가 한국종교협의회(회장 이재식) 주최로 열렸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악한 범죄현상과 관련 종교의 사회적 기능이 심각하게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서울대 윤이홍교수가 '종교개혁의 필요성'을, 한국종교협의회 이재식회장이 '실현없는 믿음도 믿음인가'를, 성관관 최근역관장이 '종교인의 의식개혁'을 각각 발표했다.

#### 기타

이밖에 한국종교문화연구원(소장 이흥후)은 10월22일 오후 2시 대구시민회관 소강당에서 '한국인의 심성과 종교'라는 주제로 제16회 종교문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회담학회는 10월29일 대간에서 대주체 없이 된 조계종 종조는 정과 연관과 교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 「자장」은 조영 예술가

### 통도사 등 사찰건축에 "빼어난 안목"

#### 홍광표 교수 주장

지난 13일 동포사 원동전에서 열린 영축불교문화연구원 제5회 정례학술회의에서 홍광표 교수(동국대 조경학)가 발표한 「자장의 조영관(造營觀) 연구」라는 논문이 독특한 관점으로 자장을 조명해 관심을 끌고 있다.

지금까지 신라 자장율사에 대한 관심이 주로 그의 사상과 철학, 국가관 등 비교적 한영원 분야에 치중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홍교수의 논문은 사찰건축에도 빼어난 안목을 지녔던 자장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불교학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홍교수는 「자장에 의해 이뤄진 통도사 개창과 금강계단의 조영 그리고 황룡사 9층탑 건립 등을 볼 때, 자장은 불교사상가로서 또는 외교정치가로서 평가받은 물론 조영예술가로서의 평가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교수는 자장의 조영관을 밝히기 위해 자장에 의해 이뤄진 불사리분안(佛舍利分安)과 통도사의 입지 선정, 통도사의 개창과 초창(初創)형식의 조영 그리고 황룡사 공간구성 형식의 변화와 황룡사 9층탑 건립 등에 내재된 의미를 해석하고 연구결과를 크게 세부분으로 정리했다.

첫째, 자장은 특별한 의도를 갖고 통도사의 입지를 선정하고 신앙의 결정체인 불사리를



홍교수는 자장의 조영관을 밝히기 위해 자장에 의해 이뤄진 불사리분안(佛舍利分安)과 통도사의 입지 선정, 통도사의 개창과 초창(初創)형식의 조영 그리고 황룡사 공간구성 형식의 변화와 황룡사 9층탑 건립 등에 내재된 의미를 해석하고 연구결과를 크게 세부분으로 정리했다.

첫째, 자장은 특별한 의도를 갖고 통도사의 입지를 선정하고 신앙의 결정체인 불사리를

결론적으로 자장에 의해 이뤄진 불사리분안과 통도사의 입지 선정, 금강계단의 축조와 통도사의 개창 그리고 황룡사 9층탑의 건립은 「당시 신라가 처해있던 정치사회적 상황을 타개하고자 했던 자장의 특별한 의도가 물리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이 곧 「자장이 지닌 조영관의 구체적 표현」이란 것이 홍교수의 설명이다. (김재경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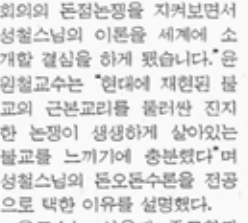
### 인터뷰

## 「성철, 전통과 현대 이어준 거인」

### 돈점연구로 미국서 박사학위 취득

#### 윤원철 교수

(서울대 종교학과)



윤원철 교수는 '성철의 돈점연구'를 주제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처음에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원효나 보조를 대상으로 학위논문은 쓰려 했으나, 90년도에 송광사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의 동점논문을 지켜보면서 성철스님의 이론을 세계에 소개할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은 윤원철교수는 「현대에 재현된 불교의 근본교리를 둘러싼 진지한 논쟁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불교를 느끼기에 충동했다」며 성철스님의 돈오돈수론을 전공으로 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 기식의 연구는문을 오히려 전통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경계했다. 그는 또 연구활동 외에 「원전 다시 읽기」운동도 전개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밝혔다.

윤교수는 「불교의 현대화를 위해서는 먼저 불경을 쉬운 언어로 풀어놓아야 한다」고 견제하고, 계집과 님을 대한 철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것이 불교학의 전통과 현대의 단절을 잇는 좋은 방법이란 뜻이다. 그리고 「세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자양성이 시급한 문제이고, 세계적으로 보자, 지능, 피계 등이 유명해진 이유는 학문적 노력 때문」이란 설명도 덧붙였다. 해외 포교활동도 중요한 일이지만 서양인에게는 학문적 언어가 쉽게 받아들여 진다는 이유에서이다. 윤교수는 마지막으로 「불교의 생활화를 위해서 스님과 불교학자들간의 교류를 넓혀 상호간의 이해를 높여가야 한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경)

#### 교의 존재의의를 확인하기 위한 문제의식을 던져주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윤교수는 귀국후 한국불교를 다시 본 소감에 대해 「학계는 아직 집중이 적어 잘 모르겠지만, 엄청난 불교서적 출판과 불교방송, 교계신문 등을 보면서 놀랐다」고 말한다. 하지만 불교서적 출판이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본불교 서적을 그대로 베끼는 등의 문제점이 아직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윤교수는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단절된 전통사상의 구원에 몰입」이라며, 「옛날식의 호교론적 방식이나 기계적 짜집

#### 두살짜리 아이에 언어장애 위험이

「문」 제너럴대로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살짜리 손녀가 구개열이라고 입천장이 갈라져 언어장애가 올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그 원인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요.

(강원도 속초시 실업중·김춘금)

「답」 그것은 누가 갖다준 것도 아니고 누가 뺏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에서 내게 다가오는 고통이란 모두 수억검을 두고 쌓이고 뭉쳐 온 압이 과포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말하자면 자기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현실의 과포가 갖가지로 다가오는 것이지요. 그러나 고통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고(苦)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고집집도 사정재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그 장본인 즉 「참나」 또는 주인공을 굳게 믿고 그 자리에 일체를 놓을 수 있는 강한 믿음을 갖는다면 녹음테이프에 앞서 입력된 것을 되자울 수 있는 도리와 마찬가지로 고가 녹아내리는 도리도 있습니다. 살아가다가 나쁜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을 「업」보다 「죄」라고 말하는 이도 있으나 사실은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일(경계)은 자성 부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과정입니다. 그러하기에 내게 닥치는 어떤 일도 긍정 아닌 게 없습니다. 나무가 뿌리를 믿듯이 자성 부처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피와 살의 일부가 되겠지요. 그렇다면 그 고기 한 점은 벌써 사람의 일부로 인도한생한 생이 되지 않습니까? 간혹하게 생각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만 쇠고기 한 점이 곧 소 한마리와 다르지 않은데 그것을 먹을 줄 아는 사람에게서는 소가 무명을 벗는 게 되고, 먹을 줄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문」 저는 불교에 관련된 책만 대략 5백권 가량 독파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되지 않습니다. 이른바 공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정만오)

「답」 부처님 법이 아무리 어마어마하고 공대무변하다 해도 생활 속에서 체할 수 없다면 공덕의 적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열 번, 백 번 읽고 또 읽어 줄줄 읽지 않게 이르렀다해도 단 한 말씀 내가 읽어 먹을 줄 모른다면 그런 공부는 헛공부입니다. 세월을

### 지상상담

#### 길을 묻는 이에게



언어장애가 오지 않도록 자신의 뿌리를 관하세요.

#### 산불이 났을면 어떻게 하나요

「문」 얼마 전에 단풍구경에 나갔다가 먼 산에 산불이 난 것을 보았습니다. 당황스러워 달려가 그고 싶었지만 달리는 차속에 있었기에 안타까운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럴 때 스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광주시 북구 운암동·박대환)

「답」 그것은 그것대로 마음의 산불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록 파괴처럼 보일지라도 한번의 그렇게 해 줄으로써 살 수 있는 기반이 서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불행 모든 나무가 타 죽는다 하더라도 결박기처럼 단지 타 죽는 것만이 아니고 거기에 진화의 도리도 있습니다. 결박기가 죽었다고 해서 속의 씨까지 죽는 게 아닙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태워서 안될 게 있고 반대로 태워야 할 게 있고, 꺼서 될 일이 있고 안 꺼도 관할은 일이 있었지요.

「부처님 말씀따라 공부하는 분이라면 그러 할 때에 믿음 속에서 일어난 한 생각의 힘을 확인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 고기를 먹어도 천도가 된다는데

「문」 「공부가 된 사람이 고기를 한 점 먹는 것은 천도다」라는 말을 어디서나 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맞는 말인지요.

(서울 성동구 용두동·최연택)

#### 다독이

「문」 저는 불교에 관련된 책만 대략 5백권 가량 독파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되지 않습니다. 이른바 공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정만오)

「답」 부처님 법이 아무리 어마어마하고 공대무변하다 해도 생활 속에서 체할 수 없다면 공덕의 적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열 번, 백 번 읽고 또 읽어 줄줄 읽지 않게 이르렀다해도 단 한 말씀 내가 읽어 먹을 줄 모른다면 그런 공부는 헛공부입니다. 세월을

남비하는 것 밖에 아무 것도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행함이 없는 공부, 실천이 따르지 않는 공부는 생명의 지식을 쌓는 데 불과합니다. 백 번 보는 것이 한 번 실천하는 것만 못합니다. 그것은 내 안에 진수성찬을 차려 놓고서 읽어 먹을 생각을 아니하고 음식이란 외어대는 꼴이나 다름없습니다. 맛을 보아야 맛을 알다. 가령 율령이가 개구리한테 땅 냄새가 어떻냐고 물었다면 개구리가 수렁은 말을 해주었다 해도 나중에 율령이가 개구리되어 물어 율령이가 보는 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 단식을 여러해 계속해도 될까요

「문」 저는 일년에 한 두 차례씩 단식을 여러 해 동안 계속 해 왔습니다. 나름대로 효과를 느끼고 있는데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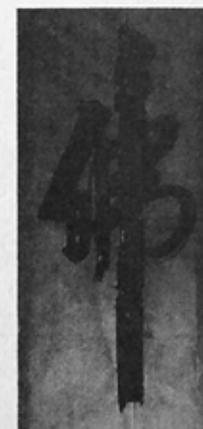
(서울 성북구 성북동·장호순)

「답」 효과를 보고 계시다니 어떤 효과인지는 몰라도 방법이 잘못이 있는 것 같지는 않군요. 그러나 몸으로 하는 단식은 좋은 선생의 지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권하고 싶은 것은 몸이 풀 단식을 하기보다 마음으로 단식을 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끊는 것은 몸을 비워서 할 단 곳을 고치겠다는 시도이지만 음식을 먹으면서도 먹는 사이없이 먹었다면 그대로 단식이겠지요. 음식을 내가 먹었지만 몸 속의 모든 생명체가 같이 먹었으니 내가 먹었다고 할 게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유유곡을 받아 잡수신 도리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 한장의 佛字가 가정과 불교를 일으켜 세웁니다.

## 대동불교예술대학 학사건립을 위한 2천만 佛字 보급

「불자님의 정성어린 동참이 한국불교의 숙원을 이루는데 큰 힘이 됩니다.」



본 佛字는 교육을 통한 한국불교의 중흥을 에타게 염원하는 스님의 뜨거운 구도의 열이 빛어낸 역사입니다.

2천만장의 장대한 서원 오직 佛字만을 화두로 삼은 용맹정진 오늘도 그의 붓끝에는 새벽 안개처럼 맑은 향기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작품: 佛字(우정사 주지)



### 교계유일의 예술대학

본 대학은 88년 개교 이래 불교교육 연구와 인재양성, 부속연구기관설립 등 대학으로서의 내실을 다져온 교계 유일의 종합예술 대학입니다.

앞선 교육이념, 철저한 교육관리와 뛰어난 교수방법으로 미래 한국불교의 주역으로 양성하는 지회 대학의 노력을 지켜 주십시오. 그리고 더욱 넓은 세계로 용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 불사에 동참이시게 되면

- ▶ 참가자의 모든 작품에는 「대동불교예술대학 학사건립 동참기금 일련번호」가 기록되어 작품의 회소가치를 입증시켜 주고 있습니다.
- ▶ 회향시에 동참자의 이름도 작품에 넣어 드립니다.
- ▶ 일련번호 따라 동참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대학 본관 주춧돌에 새겨서 그 뜻을 같이 남기게 됩니다.

문의: ☎ 725-7527

### 대동불교예술대학 후원회

- 예술대학: 불교학과/유초중교육학과/음악과(작곡·피아노·성악)/국악과(기악·타악·성악) (02)725-7527
- 교육연구소: 범회교육연구부/시정교육연구부/불교음악연구부/범회조직연구부/교육행정연구부 (02)725-7529
-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 자력·국교3, 중2학년/특정·음악전공자 개인별지도/매주토·일/수시등록 (02)723-1525
- 청소년가야금합주단: 자력·고등학교 1학년, 2학년/특정·예대전학지도중심/매주 화·목/수시등록가능 (02)723-1528
- 주부가야금반: 자력·초급, 중급, 고급의 일반주부/특정·개인지도 실시/매주 화·목/수시등록가능 (02)723-7528

### 주부를 위한 「가야금 판소리 강좌」

주부들의 음악적인 정서함양과 예술의 전문성을 살리고자 초보자 및 중견 연주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실기지도도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 ▶ 개강: 매주 화·목요일 오후 2시~4시(수시접수)
- ▶ 장소: 본원 가야금 연습실
- ▶ 회비: 월 8만원
- ▶ 특전: 개인의 희망에 따라 별도의 연습시간을 협의, 보충지도 가능

대동불교예술대학 국악과/가야금합주단/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